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차별주의
8~9면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는
민주당
7면

참여연대의
평화주의와
가자 전쟁
1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쳐가는 미국
6면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14~15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
16면



가자 전쟁 상황

2~4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계속된다

국제사회와 민주당을
믿지 말라

관련 기사 7, 13면

이스라엘-하마스, 일시적 교전 중지

가자 전투를 곧 재개하겠다고 단언하는 이스라엘

김인식

11월 27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적 교전 중지를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된 나흘간 일시적 교전 중지는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이스라엘 인질 총 39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17명이 맞교환됐다. (이스라엘인 인질 외에 타이·러시아 등 외국인 인질 19명도 따로 석방됐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1만여 명이다(본지에 실린 '팔레스타인인 정치수 1만 명이 이스라엘에 인질로 잡혀 있다'를 보시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목적 하나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이었다. 비록 일부가 석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얼마간 달성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국제 연대 운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미국·유럽·아랍국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저항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시적 교전 중지를 압박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일시적 교전 중지가 완전한 휴전 합의로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전망해 보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교전 중지가 종료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잔인하게 공격할 것이

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일시적 교전 중지가 종료되면 총력을 기울여 가자 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설령 교전 중지 기간이 며칠 더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항구적 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했다(본지에 실린 ‘일시적 교전 중지 기간에도 안전하지 못한 서안과 가자’를 보시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11월 23일 해군 특수부대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이 자는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짐승”이라고 부른 매우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이다.)

“하마스와의 짧은 전투 중지 이후에도 군의 작전은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 전투는 최소 두 달 이상 더 지속될 것이다.”

가자 지구에서 “최소 두 달 이상” 대량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휴전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전 국가안보 보좌관 야코프 아미드로르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끝내라는 미국의 실질적인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나 이스라엘-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중재를 중단하는 등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게 할 강력한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곤혹해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와의 전쟁 뒤에 가자 지구를 점령 지배하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반적인 안보 책임을 무기한 말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호세프 보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11월 24일과 25일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공격을 확대한 것은 가자 전쟁 이후 계획을 놓고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팔레스타인인 인종 청소 자체를 둘러싼 전략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 실행 수단(전술들)을 둘러싼 차이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이견이 있기는 해도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내게 할 생각이 없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신문 〈폴리티코〉는 이렇게 지적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마스의 궤멸(또는 적어도 약화)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덧붙여,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정보 공유를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네타냐후의 잔인한 전쟁은 서방(과 아랍 국가들) 내에서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지배자들은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중에 가자 지구를 계속 점령하든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이양하든 간에, 네타냐후는 일단 가자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처지다. 그것이 ‘국제 사회’의 구상과 긴장을 빚더라도 말이다.

미국의 전후 처리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협력하는 대리인 정부에 넘겨준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 프로젝트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 프로젝트에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곧 팔레스타인 대중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 팔레스타인 대중의 동의가 없다면 ‘국제 사회’가 기획하는 점령과 가짜 평화는 실패할 운명이다.

이스라엘의 계획이든 미국의 계획이든 모두 팔레스타인인이 독립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의사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종청소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오른쪽)

사진 출처: Yoav Gallant (페이스북)



사진 출처 The Palestine Chronicle

‘국제사회’는 말과 달리 이스라엘의 살인 공세를 전혀 막지 않고 있다

일시적 교전 중지 기간에도 안전하지 못한 서안과 가자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에 서안 지구를 공격했다.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11월 24~25일 이스라엘군은 제닌에서 팔레스타인인 5명을 사살했고, 다른 곳에서 3명을 죽였다. 어린이도 한 명 죽였다.

네타냐후의 서안 지구 공격 확대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 내 극우의 반발을 무마해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극우 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네타냐후의 일시적 교전 중지 합의의 “재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서안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특히, 서안 지구 내 무장 단체를 강도 높게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툴카름에 있는 야세르 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 창립자) 동상을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10월 7일 이후 서안 지구에서 239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포로 교환 과정에서 풀려난 팔레스타인들을 환영하는 서안 지구 집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하마스와 다른 저항 단체들의 깃발을 흔들었다.

서안 지구 거주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

스타인 자치정부의 배신에 신물나, 대안을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군은 교전 중지 직전까지도 가자 지구의 병원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군사 시설”이 있다고 터무니없이 억지를 부리다 거짓말이 들통나 크게 낭패를 봤다.

그 뒤 이스라엘군은 전차를 동원해 인도네시아 병원을 포위했다.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료긴급구조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지하 병커가 아닌 병원 건물 고층을 겨냥하고 있고, 중환자실도 조준 사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병원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 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 남쪽으로 소개시키려는 의도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뿐 아니라 남부도 공격했다. 칸유니스와 이집트 국경 검문소가 있는 라파를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에서 “안전을 위해 즉시 거주지를 떠나 알려진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가자 지구 남부에서의 지상전 확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시나이사막으로 쫓아내려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무적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0일 동안 가자 지구에서 1만 5000여 명을 학살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영웅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사실 병원·학교·난민촌 공격은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투사들의 저항을 꺾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스라엘군은 11월 21일 기준 가자 지구 시가전에서 68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인정했다.

하마스는 아직 견재하고 이스라엘은 중재자 노릇을 하는 카타르와 협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는 11월 16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 이래 하마스 전사들이 이스라엘 전차와 장갑차 335대를 완전 또는 부분 파괴했다.”

하마스 대원이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로 이스라엘군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들이 돌고 있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근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보병의 사망을 우려해 제병 합동 작전을 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병 합

동 작전은 기갑 부대의 통상적 전술로, 기갑 부대가 보병 등 다양한 병과 부대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가자 시티를 짓밟고 날뛰는 듯해도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의 피해는 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만간 전투를 재개할 것이다. 전시 내각에 참여하는 베니 간츠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대표이자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질들을 되찾아오고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서 활동과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투 재개 공언은 팔레스타인 투사들의 영웅적 무장 투쟁만으로는 미국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 국가를 패퇴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국 지배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동 노동계급이 자국 지배계급을 겨냥한 혁명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스라엘군은 대량 학살을 벌이지만 실제 전투에선 고전하고 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이스라엘의 전쟁 거짓말을 믿지 말라

10월 7일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설명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 10월 7일에 정확히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하레츠>는, 10월 7일에 ‘노바’ 음악 축제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라마트 다비드 기지에서 출발해 현장에 도착한 이스라엘군 전투 헬리콥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축제 참가자 몇 명도 피격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 조사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하레츠> 칼럼니스트 기디언 레비는 10월 7일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을 “전례 없는 대실패”라고 규정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할 것이 매우 많은데 말이다. 의문점과 의혹이 정말 많다. 군과 경찰 모두 전에 없던 행동을 하고 있다.” 레비가 알자지라에 한 말이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투트 아하로 노트>의 한 기사에서는 더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헬기 조종사들은 점령 지역의 전초 기지와 정착촌에서 누가 테러리스트고 누가 이스라엘 군인 혹은 민간인인지 구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출처 Carlos Latuff



사진 출처 Carlos Latuff

이스라엘은 지하 터널에 대한 거짓말을 묻으려 한다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군사 시설”이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지난 일요일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 지하 10미터 아래에 총연장 55미터에 이르는 지하 터널이 있다고 발표했다.

가자 지구 보건부 장관 무니르 알부르시는 이스라엘 측 발표가 “순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저들은 병원에 8일 동안 있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몇 주 전 이스라엘과 미국은 병원 지하에 하마스 지휘부가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는 병원, 의료진, 환자, 피란민을 표적 공격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10월 28일 이스라엘군은 여러 층으로 된 복잡한 지휘 센터로 이어지는 대규모 지하 터널망을 시각화한 애니메이션 영상도 공개했다.

11월 14일에는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군사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했다.

그다음 날 이스라엘군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는 편집된 버전을 재게재했다.

BBC와 CNN이 보도한 텔레비전 영상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점들이 더 드러났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기자들을 알시파 병원 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실로 데려갔다. 이 언론들의 보도 영상에는 AK-47 소총이 두 정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유한 영상에는 소총이 한 정뿐이었다.

11월 8일 알자지라 뉴스는 가자 지구 내 카타르 병원 아래 하마스 지하 터널이 있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스라엘이 지하 터널 입구라고 주장하는 구멍이 사실 저수 시스템의 일부임이 인공위성 이미지와 사진으로 밝혀졌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Death and destruction for Palestinians at hands of Israel — Don't believe official version of 7 Oct events' (2023. 11. 21) / 번역 김준호

다히야 독트린 — 이스라엘은 언제나 집단적 처벌을 이용해 왔다

시온주의 군대는 식민 지배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영국 제국으로부터 배웠다고 역사가 존 뉴싱어가 말한다.

영국 보수당 총리 리시 수낙과 영국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가 이스라엘의 ‘정당방위 권리’ 지지를 대대적으로 선언하고는,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이는 엄청난 위선이다.

이스라엘군은 전체 주민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하는 것이 저항을 분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집단적 처벌 군

사 교리를 언제나 신봉했다. 시온주의자들은 1936~1939년에 벌어진 팔레스타인인들의 위대한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한 영국에게서 그 군사 교리를 배웠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영국 군대를 공격하면, 영국 군대는 근처 마을을 파괴하고 곤했다. 영국 군인들은 보복의 일환으로 공공연하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때리고 총으로 쏘았다. 가옥을 수색할 때조차 영국군은 “원주민”에게 본패를 보여 주기 위해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권고했다.

한 번은 부대원들이 마을을 파괴한 것이 시원찮다고 여긴 한 장교가 누군가의 집을 진짜로 박살내는 모습을 몸소 부대원들에게 보여 주고는, 다시 한번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38년 9월 알 바사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이다. 영국 군대는 팔레스타인인 남성 50명을 버스에 태우고 운전수에게 버스를 몰아 지뢰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시온주의 정착자들은 영국군을 도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짓밟았고, 영

국군이 저항을 어떻게 짓밟는지 직접 봤다. 시온주의 정착자들은 식민지 전쟁을 수행하는 잔인한 방법을 배웠다.

이는 2006년 8월 레바논 침공의 여파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 교리의 일부로 포함됐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군은 베이루트의 다히야 지구를 파괴했다. 가디 아이젠코트 장군은 이스라엘군이 다히야에서 벌인 일을, 저항하는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다시금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이젠코트는 다히야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모든 마을에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과 지역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대사의 학살 변호 강연에 항의하다

11월 22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소재)에서 ‘하마스에 맞선 이스라엘의 투쟁: 현재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동안 아키바 토르는 침공과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대변해 왔다. “국제법상 병원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가자 지구 남부에 인도적 위기는 없다”고 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유대인 배척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국기 깃발과 ‘Free Palestine’, ‘침공과 학살 변호하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 규탄한다,’ ‘Stop Genocide’ 등의 팻말을 들고 강연장에서 침묵 시위를 했다.

학생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은 국제법에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대사에 대한 초청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정문 앞에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무려 60명 넘게 참가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아랍인들, 그리고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를 비롯해 인천글로벌캠퍼스(미국 또는 유럽 대학의 한국 캠퍼스) 소속 학생과 교수도 참가했다.

기자회견 계획이 알려지자 학교 당국은 홈페이지에서 대사 강연 홍보 게시물을 숨겼다. 그리고 대학 정문을 통제하면서 “학생증을 제시해야 캠퍼스



이스라엘 대사의 강연장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몸에 두르고 앉아 침묵 시위를 벌인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들(위) / 평일 낮인데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정문 앞 기자회견에 60명이 참가했다(아래)

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죽 몇몇하지 못한 행사였으면 그랬을까.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조지메이슨대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임스 씨가 첫 발언을 했다. 그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한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의 초청 강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반인도적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것은 현재 매우 부적절합니다.”

연세대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을 요구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임재경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휴전 결의안조차 기권하며 이런 학살 국가를 편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끊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대사관도 쫓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로 그냥 가십시오!”

예멘인 무트입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대사가 대체 무엇으로 강연을 한다는 겁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이고 억압적인 학살 만행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천 주민 김영익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강연 주제가 ‘하마스에 맞선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정직하게 ‘이스라엘의 가자 주민 말살 정책, 이스라엘의 제2의 나크바’라고 제목을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날 행동은 학살 옹호 대변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어디를 가든 결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박혜신

서 벌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압도적인 무력을 써서 막대한 피해와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아이젠코트는 “주민을 해치는 것이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를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다.

아이젠코트는 현재 네타냐후 내각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다히야 독트린”을 2009년 가자 지구 공격 이후 가자에서 벌인 모든 공격에 적용했다. 2009년 공격 이후 유엔의 요청으로 작성된 <골드스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의 공격을 본질적으로

로켓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 묘사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스라엘의 계획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다른 표적, 즉 가자 주민 전체를 겨냥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가자 주민들을 그들의 회복력과 하마스에 대한 뚜렷한 지지를 이유로 처벌하는 정책 전반”의 일환이었다. 이런 고발은 오늘날 더 시의적절하다.

이스라엘의 2009년 공격으로 1400여 명의 팔레스타인 남녀와 어린

이가 살해당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난 모든 공격을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으로 유엔 직원 100여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동당 당수 스타머와 예비외무장관인 데이비드 라미는 계속 휴전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모두 가장 잔인하고 유혈난자한 집단 처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의회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에 맞서 계속 행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제법 교수 리처드 폴크는 다히야 독트린이 “전시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범들을 명백히 위반할 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폭력의 교리를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에 걸맞는 적절한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바로 국가 테러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

존 뉴싱어

출처 John Newsinger, 'The Dahiya Doctrine: Israel has always used collective punishment' (2023. 11. 22) / 번역 오수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쳐가는 미국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됐다. 최근 사례를 두 가지 들어 보겠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2015년 이래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옛 소련이 만든 우크라이나의 [정보 — 캘리니코스] 기관들을 굳건한 대(對)러시아 동맹으로 탈바꿈시키려고 수천만 달러를 썼다.”

심지어 CIA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내에 자신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할 특수 부서 제5부를 창설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는 영국 비밀정보부와 협력하는 제6부도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공격적인 암살·파괴 공작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폭파도 그런 공작의 하나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더 최근에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CIA 고위 관료”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1970년대 [이스라엘 대외 정보 기관] 모사드와 유사한 정보 기관들의 집합체가 탄생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1970년대는 모사드가 전 세계에서 암살 공작을 벌이던 때였다.

강대국들이 안보·정보 기구에 그토록 깊이 침투해 있는 국가는 온전한 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로 그 강대국들에 의해 외교가 좌지우지되는 국가도 온전한 독립국으로 볼 수 없긴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정당 ‘국민의 종복’의 원내대표 다비트 아라카미야는 매우 화제가 된 인터뷰에서 세간에 널리 퍼돌린 아래 루머가 사실임을 확인해 줬다.

아라카미야는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튀르키예 도시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평화협정 체결에 거의 근접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요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젤렌스키 정부가 이 요구에 응할지를 두고 망설이던 2022년 3월 말,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키예프(키이우)로 날아가 “우리는 저들과의



토사구팽 신세가 될 위기에 빠진 젤렌스키

어떤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전쟁을 벌이자!” 하고 말했다.

핵전쟁에 의한 멸절을 위협하는 전쟁, 수만 명의 목숨을 계속 앗아가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일은 떠올리기 어렵다. 이런 정책의 동기를 그 옹호자 중 한 명인 신보수주의자 맥스 부트가 최근 간단명료하게 표현했다.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돈이 걸려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무장력에 대규모 손실을 안기고 있고, 그 덕에 러시아는 향후 몇 년 동안 이웃한 나토 국가들에 전보다 덜 위협적일 것이다.”

또 하나의 전쟁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은 분명하다.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제한적 성과만을 냈다.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하고 단단히 방비를 갖춘 러시아군을 결정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군력과 병사 수가 부족하다. 젤렌스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을 질책했는데, 잘루즈니가 이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계속 쏟아붓는 데 대한 정치적 지지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시들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하원을 좌지우지하는 공화당 우파는 추가 지원에 대해 반대하고, 이는 유럽 극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유럽연합은 재정을 둘러싼 이례적인 갈등에 빠졌는데,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는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셋째, 중동에서 또 하나의 위험하고 유혈낭자한 전쟁이 벌어져,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두 지지자들인 미국과 독일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다. 양국 모두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가자 지구 공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에 나서도록 미국과 독일이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독일의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기 지원국인 양국은 지원하는 무기의 양과 질을 제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가 푸틴 정권과 대화에 나서게끔 압박하기로 마음 먹었다. ‘젤렌스키는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독일 정부 소식통이 본지에 한 말이다. ‘젤렌스키는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이 보도가 참말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젤렌스키는, 후견인이 큰 비용을 떠안으면서까지 지원할 가치가 더는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대리인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번역 김준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만행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즉시 휴전” 결의안에 기권했다.

11월 22일 런던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윤석열과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하마스 규탄’과 ‘인도적 재앙’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스라엘에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이 말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보며 충격에 빠진 지 50일이나 흘렀지만, 민주당은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16일 “하마스 규탄” 입장을 밝혔다.

10월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였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기존 노선을 유지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자”고 했다. 가자 전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회피하는 것이었다.

한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11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11월 24일 방한한 왈리드 시암 주일본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사를 만났다.

그러나 김 의원의 그런 행보는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그조차 분명한 이스라엘 규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 애도를 표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양비론이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이렇게 지적한다.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가자 침공과 구호선단 공격에 대한 유엔 진상조사단 결의안”이나 “[이스라엘] 점령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권해 왔다.”(《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김대중 정부 때인 2001~2002년 한국은 유엔 총회 의장국이었는데, 2002년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관한 긴급 규탄 결의안에 기권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규군 2만 여명을 동원해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과 난민촌을 공격해 단 열흘 만에 팔레스타인인 52명 이상을 살해했다.

노무현 · 문재인 정부도 이스라엘의



2019년 7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환담을 나누며 빠른 FTA 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레바논 ·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관한 진상 조사 및 규탄 결의안에 기권했다.(이 사례들은 뒤에서 더 살펴본다.)

‘테러와의 전쟁’과 레바논 파병

한-이스라엘 수교 협상이 시작된 것은 일찍이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부 때였다. 이 협상은 1962년에 완료됐다.(1999년 장면 탄신 100주년 기념 때 당시 대통령 김대중은 명시적으로 장면과 동일시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오일 쇼크 속에서 한국이 중동 산유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어져 1978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폐쇄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1992년 재개설됐고 이후 20년 동안 양국간 교역량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 타결되고 아랍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자 한국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것이다.

1995년에는 한-이스라엘 방산군수 협력 합의도 체결됐다. 2003년이 되자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무기의 12퍼센트를 한국이 구입했다. 2011년 이스라엘의 한국 수출 물량 중 대부분이 국방 분야 거래였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도 그런 변화 과정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두 정부는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새로운 전쟁들에 미국을 지지하며 참전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는 2001년 9·11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천명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003년에는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를 침공했다. 중동의 석유를 통제해 경쟁 열강에 미국의 패권을 확인시키려고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에 파병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두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한 게 아니라 능동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중론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바논 기반 이슬람 정당 헤즈볼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패퇴했다.

그러자 부시 정부는 “미국을 파괴하려는 이슬람 파시스트들과의 전쟁”을 위해 유엔 다국적군을 서둘러 결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보조를 맞춰 2007년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레바논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동맹부대를 파병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려 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동맹부대의 파병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0년 넘게 연장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은 동맹부대 철수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입장을 뒤집어 파병 연장에 찬성했다.

가자 폭격 중이던 이스라엘과 FTA 맺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대부분 미국 트럼프 정부와 겹쳤다. 트럼프는 2018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로 인정해 미국 대사관을 그곳으로 이전했고, 2020년에는 이스라엘의 점령지를 공식 영토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다.

2018년 5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개관하는 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다. 최소 135명 이상이 죽고, 85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권했다.

2021년 5월 10일 이스라엘은 가진 무기라고는 돌맹이뿐인 팔레스타인인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 66명을 포함해 최소 25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5월 19일까지 7만 2000명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추방당했다(유엔 추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이 한창 벌어지던 5월 12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문재인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반세기 넘는 우호 관계”라며 낮부끄러운 치하를 했다.

그 협정의 결과로 2021년 양국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7퍼센트나 성장했다. 특히,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2013년) 313만 달러였던 무기 수출은 2022년 824만 달러로 늘었다.

지금 민주당은 총선과 차기 집권당이 될 때를 특히 염두에 두고 팔레스타인인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

김승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는 인종 학살은 인종차별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인종차별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엄청난 수의 민간인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학살하는 것이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병사들에게 병원을 습격하고 학교를 폭격하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적을 우리와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겠는가? 적이 야만적이고 교활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문명화된 인간과는 거리가 멀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의 다른 종(種)처럼 묘사한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지난달 가자 지구에 “전기도 물도 연료도 공급하지 않는 완전한 봉쇄”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인간 짐승과 싸우고 있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공격이 “빛의 아이들과 어둠의 아이들 사이의 결투, 인간성과 정글의 법칙 사이의 결투”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와 ‘저들’을 분리해야 할 필요는, 대서양 노예 무역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발명하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새로 등장한 인종차별 이데올로기가 아프리카인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었다.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인이 짐승과 동격”이라는 사악한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1982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겨냥한] 레바논 전쟁 중에 이스라엘 총리 메나헴 베긴은 팔레스타인인을 “두 발로 걷는 짐승”으로 묘사했다.

다음 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라파엘 에이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 나라[팔레스타인]를 식민화하고 나면, 아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약에 취해 병 속에 갇힌 바퀴벌레처럼 우왕좌왕하는 것뿐이다.” ‘바퀴벌레’는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때 [학살당한] 투치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됐다.

2016년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리 장벽 건설 현장에서 네타냐후는 장벽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이 지역에서 야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잔인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잔인함에 대한 비난을 달리 반박할 수 없을 때 종종 본능적으로 인종차별적 언사를 사용한다.



이스라엘은 왜 뱃속까지 인종차별 국가인가

서방에서 이슬람 혐오와 반유대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에 기초해 건국됐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억압이 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본질적 일부라고 찰리 킴버가 설명한다.

최근 [영국 방송국] 스카이 뉴스는 전 이스라엘 유엔 대사 댄 길러만에게 가자 주민을 집단 처벌하는 것을 해명하라고 요청했다.

댄 길러만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모습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짐승들이 금세기 최악의 잔혹 행위를 벌였는데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식민 정착민 국가의 핵심에는 아파르트헤이트와 인종 분리가 있다.

이스라엘 귀환법은 모든 유대

상대가 야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문명화된 인간과는 거리가 먼, 거의 다른 종(種)처럼 묘사한다

인과 유대인 조부모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한다. 팔레스타인인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추방한 부모나 조부모가 있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구닥다리 편견 같은 것이 아니다. 2018년에도 이스라엘 국회는 ‘민족-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고향이며 유대인은 이스라엘 내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국가적 가치로 보고, 정착촌 건설을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실천할 것이다”라고도 쓰여 있다. 인종 청소를 이룬 유대인만의 영토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빼앗고 정착촌을 세울 권한을 준다.

10월 7일 이전에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불법 정착민 70만 명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인 추방과 강탈 속도가 아주 크게 빨라졌다.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수준 격차는 물질적인 것으로 강화된다.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인은 건설이나 초보적인 서비스업 같이 임금이 가장 낮은 부문, 그중에서도 가장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관련 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노동자인 탓에, 더욱 임금이 낮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에서 일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다른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보다 그나마 처지가 나은 편이다.

이스라엘과 그 정착촌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인 노동자의 임금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인 노동자보다 2.7배 높다. 서안 지구 노동자보다 2.2배, 가자 지구 노동자보다는 4.4배 높다.

이스라엘인 노동자는 자기 사장과 정치인들에게는 분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팔레스타인인보다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스라엘인 노동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자금 투입 없이는 자신의 삶이 지속될 수 없음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언젠가 네타냐후에 맞서 거



“유대교는 시온주의도, ‘이스라엘’ 국가도 거부한다”

리에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 반(反)시온주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타적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는 언제나 인종차별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20세기 초, 초기 시온주의자들은 반유대주의(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혐오하는 것)는 영원하고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억압받고 비유대인들의 지속적 폭력에 시달릴 운명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다.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을 뿌리뽑는 것은 물론이고 격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런 시온주의 분석은 가장 끔찍한 반유대주의와 소름 끼치게 비슷한 점이 있었다. 두 관점 다 유대인이 다른 인종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시온주의는 소수의 견해였다. 대다수 유대인은 보수적,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접근법을 받아들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 법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이 체제에 적응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한다면 유대인들이 명성을 얻고 엘리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는 단지 소수 부자만 귀를 기울였다.

자유주의자들도 더 넓은 사회에 섞여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정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로 출근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검문소

치적 절차 내에서 압박을 가해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얻고 반유대주의적 조치를 없애길 바랐다.

사회주의자,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유대주의가 자본주의의 파괴적 효과 중 하나라고 여겼다. 반유대주의와 맞서 어디서든 유보 없이 싸워야 하지만, 결국에는 더 넓은 체제에 맞서지 않고서는 반유대주의를 없앨 수 없다고 봤다.

노동자들이 반유대주의를 뿌리 뽑는 길은 단결해 투쟁하고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 살상 기계

시온주의자들이 전진하는 방법은 제국주의의 살상 기구에 자신들의 미래를 거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대국 우방들에게 중동에서 제국주의 전초 기지 구실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은 유대인 국가의 꿈을 이룰 군사적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동맹을 맺은 강대국들의 인종차별을 가져다 써야 했다.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에 대한 비뚤어지고 왜곡된 형태의 대응이었지만, 제국주의와 손잡자 그 자체로 인종차별의 한 형태가 됐다.

이스라엘은 1948년 살인, 협박, 의도

적 폭력을 통해 아랍인들에게서 강탈한 땅에 세워졌다. 이것은 아랍인을 기껏해야 원시적이고 후진적 인간, 최악의 경우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김으로써 정당화됐다.

어느 쪽이든 아랍인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 “우월한 인종”이 변할 수 있도록 쏘아 버려도 괜찮은 존재로 여겼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이론과 실천과 공명했다. 윈스턴 처칠이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냈다.

처칠은 1937년 유대인 국가에 관한 영국왕립조사위원회(필 위원회)에서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팔레스타인의 아랍 주민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개가 여물통 안에 아주 오래 누워 있었다고 해서 그 개가 여물통의 최종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는 미국 인디언이나 호주 유색인들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강한 인종, 더 우월한 인종,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아는 인종이 들어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칠은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려고 제국주의가 자행한 인종 학살을 사례로 들었던 것이다. 그 학살들은

인종차별적 거짓말을 내세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칙에서 예외로 간주된다. 그런 식으로 가자 주민 1만 2000명을 죽이는 것이 용인된다. 또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 사막으로 내보내는 것이 용인된다.

그러나 모든 식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도 자신들이 억압하는 대상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경멸을 쏟아내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장벽과 철조망 뒤에 가둬야 한다고 여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이 저항하면 때리거나 죽여야 하고, 굶실거리고 쏘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종차별을 부정하려고 이스라엘인과 그 지지자들은 시온주의를 비난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라고 주장한다.

시온주의자들의 혐오에 맞서는 우리의 팔레스타인 지지 행진을 “혐오 행진”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이 현실에서는 거꾸로 뒤집혀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운동은 이 모든 거짓말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

출처 Charlie Kimber, 'Why the Israeli state is racist to the core' (2023. 11. 20) / 번역 이진하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8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편든 미국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일시적 교전 중지 합의에 대해 “광범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용인했고, 이번 가자 전쟁 개전 직후 이스라엘로 가 네타냐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또, 막대한 양의 포탄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는 이라크 전쟁에서 시가전을 치른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을 군사고문단으로 파견했다.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점령·침략·학살을 변함없이 지지·지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추진할 때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소련과의 냉전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제국주의의 핵심 동력자원인 석유가 다량 매장돼 있는 중동 지역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자면 미국의 믿을 만한 중동 동맹이 필요했다. 자기네 이익을 대변해 줄 이스라엘의 건국은 미국에게 희소식이였다.

마침 이스라엘도 경제 안정과 군사력을 갖추고자 신흥 최강국 미국과의 관계 구축을 타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자금과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다. 자칫 중동 산유국 정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저울질 끝에 양면 전략을 택했다. 자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을 앞세워 아랍 정권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 중동에서 아랍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군사 원조를 크게 늘렸다.

1952년이 분기점이였다. 그해 이집트에서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 나세르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위기감이 커졌다. 1951년 10만 달러였던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액은 1952년에 무려 8640만 달러로 경증 뛰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중동 “경비견”이 되고자 했다. 1956년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이스라엘은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해 이집트를 침공했다(제2차 중동 전쟁). 미국은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자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의 손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피가 흥건하다. 11월 19일 부산 집회

극할까 우려해 영·프·이스라엘에 철군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유용성을 과시했다. 이스라엘은 아랍 민족주의 물결에 맞서는 서방의 보루를 자임했다.

중동 경비견

1960년대 들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경제·군사 원조를 더욱 늘렸다.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가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효과적인 경비견임을 입증했다. 베트남 전쟁에 발목 잡혀 있던 미국을 대신해 독자적으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를 격퇴한 것이다.

린든 B. 존슨의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극찬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떤 동맹국보다도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안·가자·골란고원 점령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 여겼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어떤 동맹국에도 제공한 적 없는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했고, 심지어 핵무기 정보도 제공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인상과 이스라엘 제어를 요구하며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그해 이집트가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제4차 중동 전쟁 또는 욪 키푸르 전쟁). 미국은 이스라엘에 각종 첨단 무기와 22억 달러 상당의 군수품을 신속히 지원했다.

제4차 중동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듬해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다섯 배로 늘렸고, 무기 생산 협정을 체결해 이스라엘이 무기 생산 강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친미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슬람주의 국가가 새로 들어섰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그야말로 핵심이 됐다. 1981년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아마 미국이 중동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전략적 자산일 것이다.”

1978년 18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이스라엘 원조는 1979년 48억 달러로 늘었다.

학살 공범

미국의 막대한 원조 덕분에 이스라엘은 중동의 군사 최강국이 됐다. 이에 고무된 이스라엘은 1982년 6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본부가 있는 레

바논을 전면 침공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2001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다)은 미국 국방장관에게 레바논 침공 계획을 귀띔했고, 미국 정부는 1982년 초 이스라엘에 무기 등 군수품을 대거 제공했다.

미국의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학살했다. 특히 사브라·샤틸라 난민촌에서는 불과 36시간 만에 수천 명을 도륙했다.

국제적 공분이 일자 미국은 마지못해 사태를 진정시키겠다고 레바논에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미군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눈감아 줬다. 당시 이탈리아 대통령 산드로 페르티니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 보자. 미국이 레바논에 남아 있는 이유는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제적인 학살 규탄 여론에도 미국은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사브라·샤틸라 학살 이후에, 베이루트 폭격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뒤,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술하게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대중의 격렬한 반응이 나타난 뒤에도, 미국의 지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시드 할리드,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열린책들)

레바논의 게릴라들이 반격에 나서자 미군은 베트남 악몽을 떠올리고는 철수했다. 이듬해 철군하는 이스라엘을 엄호하기 위해 미국은 베이루트를 포격했다.

레바논 침공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곤경에 빠트릴 수 있을 만큼 사나운 맹견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끈끈한 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변함없는 동맹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분출할 때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다.

1987년 1차 인티파다(봉기)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골자로 한 오슬로 협정을 중재해 항쟁을 무마했다.

2000년 2차 인티파다의 여파로 하마스가 2006년 자치정부 선거에서 승리

▶ 11면으로 이어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교훈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것은 세심한 협상이 아니라 세력 균형이 바뀐 덕분이었다.

점령지에서의 맹렬한 저항과 제국주의 본국에서의 전투적 운동이 결합되면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에서 얻을 교훈이다. 베트남 전쟁은 20년간 이어지다가 1973년에 끝났다. 이 패배가 어찌나 심대했는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아직도 여기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1968년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과 베트남 인민군(NVA)은 침략자 미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은 이 공격의 규모와 치밀함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베트남 저항 운동은 사이공(현 호찌민)시 주재 미국 대사관에 구멍을 뚫고 건물 안으로 돌격해 미군 병사를 살해했다. 저항 세력은 남(南)베트남의 주요 대도시와 미군 기지, 수많은 촌락을 공격했다.

이 '팻(설) 공세'는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입증했다. 바로 저항이 미국 제국주의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미국 거리에서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반전 운동은 소규모로 시작됐다. 초창기 시위는 규모가 수백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군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참상이 TV를 통해 거실 안으로 전해지자, 분노가 솟구쳤다. 그리고 그런 반감은 미국인 청년들, 특히 흑인과 가난한 청년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대의를 위해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심정과 결합됐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은 계속됐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가 동원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징병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이 전선 복귀와 위험한 작전 수행을 거부하며 자기 상관을 살해한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현 호찌민)시 경찰국장이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장교를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하는 장면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가 반란에 휩싸였고 군경이 투입돼 실탄을 쏘고 시위를 진압했다. 이제 전쟁 반대 운동은 정점에 올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7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국 지배계급은 양쪽의 공격에 직면했다. 한편에서 베트남 내 저항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또 대담해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 내 투쟁은 [지배자들에게] 재앙이 돼 가고 있었다. 이제 권력층 일부는 전쟁 지속을 위해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여기게 됐다.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리처드 닉슨은 자신에게 전쟁을 끝낼 계획이 있다는 듯이 유권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는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닉슨은 베트남에서 참상과 학살을 확대했고, 이를 베트남 이웃 나라들로 확장했다. 그러면 저항 운동이 굴복하리라 기대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서 분노의 불길줄을 더 키웠을 뿐이다.

전쟁이 어찌나 인기가 없었던지 주

류 신문들조차 이 전쟁을 재앙이라고 묘사했다. 1973년 1월 26일 미국의 베트남 전쟁 종전 협정이 체결됐다. 하지만 전쟁을 끝낸 것은 이 한 장의 협정문이 아니었다.

전쟁을 끝낸 것은 베트남인들의 저항과 미국의 대규모 전쟁 반대 운동이 결합돼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두 힘의 결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두 힘의 결합

있다른 폭격이 팔레스타인을 할퀴고 있음에도,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은 이스라엘에 맞선 영웅적 전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무장 투쟁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제국주의가 제공하는 돈과 최상의 군사 장비로 무장한 이스라엘 국가에 맞서 승리하기 힘들다.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벌어지는 팔

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살인적 공격과 이스라엘의 공범인 자국 정부들에 역겨움을 느끼는, 서방에 사는 우리는 모두 급진적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지배자들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후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국에서 1960년대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는 비교적 소규모였지만, 그럼에도 영국이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조직 노동계급과 더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 운동은 서방의 이스라엘 지지에 균열을 내고 시온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힘을 얻을 것이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Lessons for today from fight against Vietnam War" (2023. 11. 26) / 번역 김준호

▶ 10면에서 이어짐

하자 미국은 파타(PLO)를 주도한 정당)의 쿠데타를 사주해 하마스를 서안 지구에서 쫓아냈다.

1995년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예루살렘 전역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해 대사관 이전을 미루다 2017년 트럼

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했고, 2018년 실제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11분 만에 승인해 준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2636억 달러가 넘게 원조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외 원조 최고 수혜국이다.

이스라엘이 2009년, 2012년, 2014년, 2021년 가자 지구를 폭격하

고 정착촌을 확대해도 미국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 7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의 제1 난민촌을 공격했어도 마찬가지였다.

석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이윤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미국 등 서방은 중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2011년 아랍 혁명은 억압적

이고 부패한 아랍 정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위협했다. 그만큼 새로운 아랍 혁명은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미국은 아랍 대중의 반란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맞서려면 미국 제국주의에도 맞서야 한다.

이재혁

아랍 정권들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했는가?

김영익

1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아랍-이슬람 합동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카타르·이란 등 57개국 정상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 결의문에서 그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자위권"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학살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번지르르한 말 뒤에 그들이 숨기려고 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염원을 지금껏 배신해 왔다는 것이다.

아랍 정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기 위한 동원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를 봉쇄한다고 치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이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국가와 기업들에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치자.

중동 석유에 의존해 온 서방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릴 것이다. 아시아-유럽 간 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더 많은 국가들이 애를 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랍 정부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오늘날 아랍 자본주의도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돼 있고, 따라서 아랍 자본가 계급도 국제 자본가 계급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사이에 중동, 특히 걸프 연안 국가들은 역동적인 자본 축적의 중심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과 서방 제국주의가 맺는 관계도 변했다.

아랍 자본주의의 성장은 현지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 속에 이뤄졌다. 예컨대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에서 석유를 채굴해 온 아랍코를 미국 기업들로부터 인수해 국유화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 화학·알루미늄·철강·건설·금융 등 분야에서 자국 자본가들의 성장을 촉진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유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 무대의 주요 행위자가 돼, 전 세계를 상대로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아랍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만큼 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노동계급 인구도 대폭 늘었다. 그러나 사회적 불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의 학살을 막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평등이 계속 커져 왔고, 특히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가속시켰다.

오늘날 아랍 인구의 압도 다수가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근이 살아간다. 2019년 현재 아랍 10개국 4억 명 중 2억 5000만 명이 빈곤층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세계화

극소수 사람들이 차지한 부는 평범한 아랍인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처를 찾아 움직인다. 카타르 투자청은 4500억 달러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바클레이은행, 크레디스위스, 폭스바겐, 포르세 같은 거대 기업들의 대주주다.

아랍에미리트는 무려 1조 8890억 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했는데, 그 투자 대상에는 지금 가자 지구 공격에 쓰이는 무기들을 제작하는 군수 업체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있다.

이처럼 아랍 지배자들은 서방 자본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더욱 서방 제국주의와 대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그저 서방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자신들의 이윤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조율하는 데 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미국의 주선으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을 경계하며 이스라엘과 외교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실은 이런 수교 자체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배신이다.

9월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유럽연합 등이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야심 찬 경제 통합 구상에는 인도양과 동지중해까지를 항구와 철도 등으로 잇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아랍에

미리트-요르단-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육지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번 무장 저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협상과 IMEC에 찬물을 끼얹었다.

반혁명

오늘날 중동에는 국제 자본가 계급의 일부인 현지 지배계급과 국제 노동계급의 일부인 아랍 대중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계급 적대가 자리잡고 있다.

아랍 정권들이 내뿜는 입발림 소리와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지배자와 대중 사이를 더 첨예하게 갈라놓는 쟁점이다.

2011~13년 아랍 혁명을 겪으며 아랍 지배자들은 더욱더 보수적·반동적으로 변모한 듯하다. 그들은 혁명을 두려워하며 이에 맞서 서로 손잡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 군부가 혁명을 제압하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는 직접 바레인으로 가서 혁명 운동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2011~13년 아랍 혁명의 핵심 쟁점이었다. 튀니지에서 독재자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외쳤다. 이집트에서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대사관이 문을 닫게 했고, (봉쇄된 가자 지구의) 이집트 쪽 국경 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혁명의 패배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타격을 줬다. 아랍 지배자들은 혁명이 두렵고 증오스러울수록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내 대중의 불만과 만나지 않게 단단하게 단속하고자 했다.

이란은 다른가?

미국과 적대하는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아랍 정권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가 아닌 건 마찬가지다. 이란은 자국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억

압할 뿐 아니라, 2011년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전투기까지 동원해 공격한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다. 지역 내 영향력을 넓히는 데 아사드 정권의 지지가 필요해서였다.

참여연대의 평화주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도 말려야 할까?

이원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사이에서 일시 교전 중지가 합의되고 교전 중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평화 운동 입각에서는 평화 협상과 '국제 사회'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방한한 왈리드 시암 주일 팔레스타인 대사를 만나 연대를 표명한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참여연대는 그 자리에 배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민주당에 기대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 때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의존했지만, 결국 그 당에서 파병에 반대한 의원은 임종인 의원뿐이었다.) 시암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국가 방안만이 사태를 정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강조해 온 바와도 맞닿는 면이 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의 기습 공격 후 처음 발표한 성명서에서 참여연대는 "양측은 모두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성명서에서 참여연대는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도 반대했다.

참여연대의 입장을 순수한 양비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 큰 폭력의 책임과 더 근본적 문제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비론에 타협할 여지가 있는 입장이다. 실천에서 참여연대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 모두를 향해 휴전을 촉구해 왔다.

현재 가자 지구의 참상을 보며 평화를 염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참상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계속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지지해야 한다.

11월 2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집회에서 연



11월 25일 이스라엘의 인질 석방에 환호하며 하마스 깃발을 흔드는 서안 지구 라말라 주민들

설한 팔레스타인인 마리암 이브라힘 씨가 지적했듯이, "휴전은 이스라엘에게 현상 유지를 뜻할 뿐이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현상 유지란 억압과 폭력, 살해, 완전한 권리의 박탈을 뜻할 뿐"이다.

정의 없는 평화를 지지할 수는 없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끔찍한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왔지만, 전쟁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은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이미 2012년에 낸 보고서에서 2020년이 되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금은, 그 보고서가 감안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폭격과 팬데믹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2018년 가자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귀환 대행진' 시위와 2021년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 항쟁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번번이 이스라엘의 잔혹한 탄압과 살상에 직면했고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노골적으로 인종 청소를 주장하는 세력이 갈수록 득세했다. 주변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예 없는 셈 취급하다시피 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상황에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필연에 가까웠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에 일격을 가했다. 이스라엘 국가의 난공불락 위세에 흠집을 내고, 팔레스타인인과 중동 피억압 대중에게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의 수교 노력에 제동을 걸어 미국의 중동 정책에 차질을 줬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은 유례없는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했다. 운동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그 공격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 연대 운동의 기세는 현저 저항 덕분이다. 한국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하는 아랍인들의 정서를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어마어마한 죽음과 파괴, 참상을 안겨 주고 있다. 참여연대가 규탄하는, 하마스의 공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이 비극의 작은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공격의 역사적 의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런 비극의 원천을 끝낼 수도 있는 잠재적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기회

참여연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격 모두를 규탄하는 것은 한 치의 무고한 희생과 비극 없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기 위한 것일 테다. 특히, "당사자와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길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의 실패는 그런 접근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국제 사회'가 인정한 '평화 프로세스' 하에서 두루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점령을 지속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여기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단속하는 구실을 자임했다.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술한 '국제 사회'의 결의에도 이스라엘은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갔다.

이런 실패는 우연이 아니다. 참여연대도 자신들이 개최한 여러 강연과 발표한 글들에서 지적했듯이 강탈과 점령, 배타성은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본질과 직결돼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미 건국된 지 75년이나 된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근시안적) 현실주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 공존은 오직 이스라엘 국가가 해체되고 민주적 세속 국가로 대체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75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고(특히 2011~13년 아랍 혁명을 떠올려야 한다), 지금도 만만찮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도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해법이 되기 어려운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제국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경비견 구실을 함으로써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 속에 건국되고 유지돼 왔다. '국제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든 이에 개의치 않고 미국은 중동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를 전진시키려면, 팔레스타인 현지의 저항(인티파다와 무장 투쟁 모두)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저항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결합돼 제국주의 질서를 뒤흔들어야 한다. 특히, 주변 아랍 나라들에서의 연대가 자국 독재 정권들에 맞선 저항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방향도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비판은 건설적이고 동지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이어야 하지, 감상적 인도주의의 발로여서는 곤란하다.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권력자들의 위선에 포괄될 위험이 있다.



wspaper.org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황 및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등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임준형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허가제 도입 전까지 이주노동자 유입을 관리·통제하던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친 산업연수제였다.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고용주의 여권 압류와 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차라리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2003년 7월 당시 이주노동자의 78퍼센트가 미등록 상태였다.

이주노동자들은 1994년 경실련 농성, 1995년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등으로 저항했다.

이런 투쟁으로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알려지며 산업연수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사업장 이동 금지, 정주화를 막기 위한 체류 기간 제한 등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이어졌다.

78퍼센트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 신고하면 총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강력한 단속추방을 예고했다.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하며 한국에 적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해 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머무른다면 고용허가제의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11월 15일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 단속에 대한 불안과, 열악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에



380일의 전투성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표적 단속에 항의해 단식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

기여해 온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는 것에 분노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이주노동자 1000여 명이 농성에 나섰다.

명동성당에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이하 이주지부)를 주축으로 네 팔·필리핀·인도네시아 공동체, 민주노총, 이주민 지원 엔지오들의 연대체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등이 공동 농성단을 꾸렸다.

그러나 공동 농성은 이틀 만에 분열했다. 외노협은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제에 비해 차악이라고 여겨 지지하는 등 입장 차이가 있었고, 결국 성공회 농성단으로 갈라져 나갔다.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고, 이를 어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이 뒤따를 것도 불 보듯 뻔했다.

고용허가제 지지 여부로 농성은 두 군데로 나뉘어 이뤄졌지만, 농성장 순회 방문과 공동 집회 등 공동 투쟁은 지속됐다.

농성이 해를 넘기자 1월 17일 노무현 정부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4년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자진 출국하면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제로 재입국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재입국 여부가 불확실한 안이었지만, 고용허가제를 지지한 성공회 농성단은 제안을 받아들여 농성을 풀었다. 다른 농성단들도 1월 중순 이후 차차 해산했다.

반면 명동성당 농성단은 제안을 거부하고, 미등록 이주민 전면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농성을 지속했다.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인 샤말 타파 이주지부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2월 15일 정부는 샤말 타파 지부장을 연행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샤말 타파 지부장은 단식 투쟁으로 저항했고, 농성장에서도 4명이 동조 단식을 벌였다. 4월 1일 정부는 샤말 타파

지부장을 기습적으로 추방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표적 단속 위협에도 농성단은 쌍용차, 외환은행 등 다른 노동자 투쟁이나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세계경제포럼 반대 행동 등에 적극 연대했다.

10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참가한 명동성당 농성단원 자이드 씨는 “이주노동자는 한국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자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연설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고용허가제

농성이 장기화되자 일을 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했다. 결국 2004년 11월 28일 농성을 중단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노동자 이주노동자 단결 투쟁, 노동 해방 쟁취하자, 노동비자 쟁취하자!” 하고 외치며 눈물을 머금고 농성을 끝냈다.

비록 요구 사항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380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큰 성과를 남겼다.

우선 단속추방 등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렸다. 명동성당 농성단이 정부의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을 지속할 명분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계속 개악했고, 이주노동자를 계속 단속추방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저항도 계속됐다. 결국 외노협은 2012년 고용허가제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또한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노동자가 전투적으로 싸워 투쟁의 초점을 제공하고, 한국인들과 노동운동·진보진영의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됐다. 금속과 건설 부문의 일부 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농성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정치 의식을 성장시키고 단단한 활동가로 훈련받는 기회가 됐다. 이들을 바탕으로 이주지부는 2005년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 15면으로 이어짐

네덜란드 총선

극우 자유당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에바우트 판덴베르흐

에바우트 판덴베르흐는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의 기관지 <사회주의자>의 수석 편집자이다.

지난주 네덜란드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이 승리했다. 자유당은 150석 중 37석을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노동당-녹색당 연합은 25석을, 기존 집권당이자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은 24석을 차지했다.

2년 전만 해도 자유당은 무의미한 세력처럼 보였다. 자유당은 야당 중 하나가 될 운명일 듯했고, 2017년부터는 신생 네오파시스트 정당 '민주주의 포럼'에 밀려날 듯했다.

'민주주의 포럼'은 2019년 지방선거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유당은 언제나 당대표이자 유일한 당원인 빌더르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민주주의 포럼'은 정당 운동을 건설하려 했다. '민주주의 포럼' 지도부는 파시즘 전통을 분명하게 따르지만, 정당원들은 공공연하게 유대인 혐오적이고 "과학적 인종차별"을 신봉하는 당을 건설할 태세가 돼 있지 않았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주의 포럼'은 내부 갈등을 수차례 겪었다.

지난여름, 자유민주당 전 대표 마르크 뤼터를 총리로 하는 제4차 내각이 붕괴했다. 자유민주당은 연정 파트너들에게 난민 문제에서 더 많이 후퇴하도록 압박했고, 심지어 전쟁을 피해 네덜란드로 들어온 난민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려 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 대표 빌더르스

자유민주당은 이 쟁점으로 정부가 무너지게 함으로써 이민 문제를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극우파와 차기 정부를 구성하려 했다.

한 달 뒤 자유민주당은 빌더르스와 공동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그럼으로써 2017년 모로코계 네덜란드인을 인종 청소하자는 증오 연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인종차별적 정치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

갑자기 빌더르스는 통치 기회를 얻게 됐고, 그의 지지자들은 더 대담해졌다.

언론이 그를 온건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빌더르스는 더욱 주류화됐다. 그가 노골적인 "탈이슬람화" 요구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한 사례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인을 다시 우선하라"는 제목의 선거 공약집에서 빌더르스는 여전히 "이슬람 학교, 모스크, 쿠란"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슬림과 난민을 향한 빌더르스의 인종차별이 갈수록 대세가 됐다. 우파 정당 대부분이 같은 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 나토 전쟁광들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총리 마르크 뤼터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함께 난민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과 튀니지의 합의를 중재했다. 이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을 북아프리카로 추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노동당과 녹색당은 선거 연합

을 꾸려서 선거에 참여했다. 그들은 선거 연합을 통해 각자의 선거 성적 하락세를 만회하려 했다.

두 당은 더 우경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예컨대 노동당-녹색당 연합의 지도자 프란스 팀머만스는 이스라엘 점령에 맞선 하마스의 저항을 '죽음 숭배'로 비유하면서 이를 서구의 '생명 문화'와 대비시켰다.

다른 좌파 정당들은 모두 의석을 크게 잃었다.

앞으로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자유당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종차별

자유당의 약진은 빌더르스뿐 아니라 다른 인종차별적 후보들도 주목받게 할 것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모든 정당이 지금은 빌더르스와의 연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빌더르스가 이끄는 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부는 네덜란드 지배계급을 안심시키는 사례다.

좌파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극우에 맞서 여러 사회 운동이 단결할 여지도 열렸다. 총선 이후 며칠간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 노동조합 기층 조합원들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미약한 상태이지만, 기후정의 운동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좌파에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자신감을 주고 있다.

출처 Ewout van den Berg, 'How did Wilders' far right PVV party win the Dutch election?' (2023. 11. 26) / 번역 이진화

▶ 14면에서 이어짐

오늘날에 주는 교훈

20년이 흐른 지금도 고용허가제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30퍼센트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한다며 불평한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들이 그

제약을 뚫으려고 갖은 애를 쓰며 나름의 저항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 감소와 몇몇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려 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숙련된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허용 업종과 도입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자 단속추방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더욱 강화했다.

그런데 노동운동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들지만, 사실상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다며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면 열악한 조건을

계속 감내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 20년 전 명동성당 농성에 나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이들이 업종이나 사업장 변경 등에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원하는 만큼 한국에 머물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성별인정법 발의(예정)를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 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 없이도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인정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했다.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공문서에 표기된다)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아 트랜스젠더가 겪는 불편과 고통이 크다.

은행과 의료기관 이용, 관공서 방문, 투표 등 일상생활에서 성별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이 광범하게 쓰이다 보니 법적 성별과 외양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본인이 맞냐고 추궁당하거나 차별받기 일쑤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1)'를 보면, 트랜스젠더 554명 중 21.5퍼센트가 신분증을 제시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 우려해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당연히 취업도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성별 정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006년에 제정된 대법원의 예규가 성별 정정 허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조건이 약간씩 완화돼 오긴 했지만 여전히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성전환 수술 여부, 생식능력 상실 여부 등이 참고 사항으로 포함된다.

고문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가혹하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수천만 원이나 드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수술은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36년을 참았고, 독립할 기반을 마련한 뒤 수술을 받았다"는 나화린 사이클 선수의 말이 그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수술을 처음 결심했을 때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겁이 나서 몇 번이고 취소할까 했었어요. ... 그런데 흔히들 보통 트랜스젠더들이 수술할 때 '그냥 이대로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편이 많아서 저도 '죽으면 그만이니깐' 그냥 그런 생각에 평온하게 갔다 왔어요."(KBS 뉴스)



사진 출처: Ted Eytan(블라카)

까다로운 성별 정정 요건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가 고통받고 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어도 여러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있다.

그래서 유엔 고문특별 보고관은 2013년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제 불임 요구가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트랜스젠더도 많다.

"법적 성별 정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치료를 다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 저는 수술비를 여러 차례 모았어요. 그런데 모을 때마다 번번이 다른 급한 돈 쓸 데가 생겨 네 차례나 날렸어요."(트랜스여성 한결(가명) 씨 인터뷰, <노동자 연대>)

2021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중 성별 정정을 완료한 사람은 겨우 8퍼센트(47명)에 불과했다.

법률이 없어 재판부마다 성별 정정 판단이 제각각인 것도 트랜스젠더에게 어려움을 준다. 올해 2월 최초로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것처럼 진전된 판결이나 오는가 하면, 어떤 재판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초중고 생활기록부나, 심지어 수술한 성기 사진까지 요구한다. '판결

이 잘 나오는' 법원이 어디인지 수소문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오랜 요구였다.

한편, 보수적 개신교와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인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

별 정정 요건 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번에도 일부 기독교 단체가 장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이미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장혜영 의원의 성별인정법도 이들 나라의 법안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도 일부 우파가 성별인정법이 통과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등 두려움을 부추겼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 부정이 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은 개인의 핵심 자아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는 점은 성별 정체성의 실재를 방증한다.

장 의원의 성별인정법 발의를 환영한다.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에 기반한 성별 정정 권리가 법으로 인정돼야 한다.

성지현

11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12월 2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12차 집회·행진은 12월 9일(토)에
13차 집회·행진은 12월 16일(토)에
열립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행진 경로 집회장 → 광화문역 → 종로2가 → 명동성당(명동길)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1천역) → 집회장

KB국민은행, 마스라엘대사관, 광화문역 5번 출구, 집회장, 광계천, 효령빌딩